

소쇄원 외원 연구

- 가산 30영을 중심으로 -

박경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환경조경정보학과

I. 서론

현재까지 소쇄원에 관한 연구는 소쇄원 내원(內園)에 한정된 연구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암유고(芳巖遺稿)에 실려 있는 丙子7月(1636년 7월)에 '忍齋 梁晋泰가 고향을 읊은 시 30수'(謹次仲父家山三十詠韻)인 소쇄원 30영을 기초로 하여 현 지도와 비교하여 소쇄원 외원을 연구함으로써 소쇄원으로 부터의 차경 대상인 외부 자연환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쇄원 외원 연구는 소쇄원 경역과 소쇄원 북, 동북, 동, 남쪽 방향의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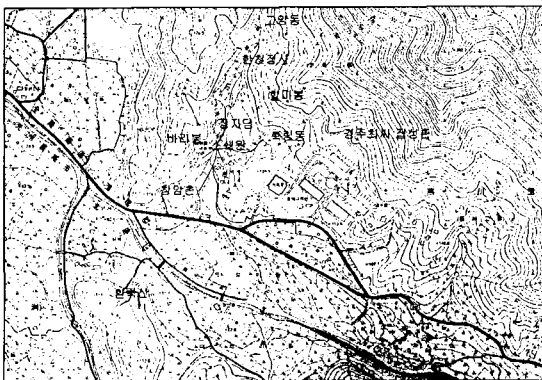


그림 1. 소쇄원 주변 현황도

II. 소쇄원 외원

1. 소쇄원 경역

1) 소쇄원(瀟灑園)

소쇄(瀟灑)는 깨끗하고 시원함을 뜻하며 물이 중심이 된 계곡이라고 볼 수 있다.

超然遐邇 亭沼此經營 水石偏瀟灑 方知不爽名
초연히 멀리 숨어들던 날
정자와 연못의 터를 잡았는데
수석이 몹시 맑고 깨끗하여
이름 더럽히지 않을 줄 알았네.

2) 지석리(支石里)

지석리(支石里)는 소쇄원에서 과거 지등(支嶝)마을이 있었던 충의교육원까지를 말한다. 지석은 배틀 위 다섯 개가 수직으로 담장을 지탱하고 있는데 소쇄원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개축(改築)하지 않은 상태이다.

危石支還立 都出造化機 擎犬如有口 岳與爾同歸
위대로이 돌이 버티고 서 있으니
모두 조화의 기틀로 말미암았네.
하늘을 떠받쳐 태양을 우러르는 듯
나는 너와 더불어 돌아가리라.

3) 오곡문(五曲門)

오곡문(五曲門)은 내원(內園) 북동쪽 담장에 있었던 문으로 문은 없어지고 담장에 현판만 보존되었고 「소쇄원도」에 위치가 표기되어 있다.

驚湍加三水 龍門少幾灘 東風花滿浪 不遺鎖仙壇
물가의 백로가 서너 번 헤엄치는데
오곡문의 용은 몇 번이나 여울졌던고
봄바람에 너울거리는 저 꽃잎아
신선이 사는 곳을 가리지 말게나.

4) 봉황암(鳳凰巖)

소쇄원 계곡 암반이며 암반 위 폭포를 십장 폭포라 한다.

龕成白玉窟 中瀉醴泉湍 夜夜來西母 應驂紫鳳翰
백옥같은 굴에다 등지를 만들고
예천의 여울물을 쏟아 부으네
밤마다 서왕모가 찾아와서는
자주빛 봉황의 소식을 전하겠지.

5) 자죽총(紫竹叢)

소쇄원 입구의 대나무 숲을 말한다.

紫玉蟠狐石 자옥 빛 대나무 외로이 돌에 서려있어

携來侈野翁 옮겨 심으니 들판의 늙은이 호사롭구나.
 只愁有神怪 다만 근심할 손, 괴이한 것이 있어
 騰躍葛陂中 쪼 언덕에서 뛰어오르지 않을는지.

矗立如擎日 바로 서있는 모습 태양을 받든 듯하고
 回環似拱星 빙 둘러 북극성에 읊하는 듯.
 山人孰云儉 산 사람을 누가 검소하다 했는가.
 翠色列成屏 푸른 빛 퍼져나가 병풍을 이룬 걸.

6) 후간장(관덕사) 幟竿場

소쇄원 사실에 의하면 대봉대 부근이나 후간장은 활을 쏘는 곳으로 소쇄원 담장 바로 바깥쪽일 가능성이 크다.

觀德必於射 덕은 활쓰기에서 보는 법이니
 享賓元用侯 손님을 맞아서는 원래 후를 거는데
 平無貫革專 평소 과녁을 뚫을 마음은 없어
 時是尙文柔 한때 문장의 부드러움만 숭상하네.

7) 오암정(鰲巖井)

오곡문 밖 우물이다.

鰲頭吐瓊液 자라 머리가 옥같은 수액을 토하더니
 再搗欲成仙 거듭 움켜쥐어 신선이 되려 하네
 疑是武陵近 이곳이 무릉도원에 가까운 곳일까
 霞光井底天 노을이 우물 속 하늘에서 빛나네.

8) 바리봉(鉢裹峰)

소쇄원 주차장 서쪽의 작은 봉우리이며 바리때를 얹어놓은 모습이다.

無畏今何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아.
 惟應住此峰 오직 이 봉우리에 머물 뿐
 有時揮鉢水 때로는 바리때 물을 휘 뿌려서
 喚起老瀟東 연못의 늙은 용을 일깨우고저.

9) 황금정(黃金亭)

소쇄원 주차장 부근에 있었던 우물터의 정자이다.

古有丹砂井 옛부터 단사의 우물이 있었는데
 今看綠野中 이제야 푸른 들판에서 보는구나.
 餐亭上臥 셋밥 먹고 정자 위에 누워 있으니
 恍躍大瀟東 황홀하이. 큰 바다 동쪽을 밟은 듯.

10) 창암동(蒼巖洞)

소쇄원 본가(本家)가 있었던 곳으로 「소쇄원도」에는 창암촌(蒼巖村)으로 표기되어 있다.

창암(蒼巖)은 양산보의 아버지 양사원(梁泗源)의 호이며 스승이자 매부(妹夫)인 조억(曹億)을 따라 광주에서 이곳에 터를 잡았다. 송 순(宋純)의 고모부로 아들 양산보(梁山甫)를 조광조(趙光祖)에게 찾아가 수학(修學)하게 했다. 한편 조억은 조홍립(曹弘立)의 선조(先祖)이다.

2. 북쪽

1) 응정봉(瓮井峰)

소쇄원 외원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다.

尤老曾揮筆 우암이 일찍이 붓을 휘둘러
 幽山始定名 이 산은 비로소 이름이 정해졌네.
 厚深宜澤物 도타운 정은 사물을 빛내나니
 磅礴更鍾英 은 기운이 모여 빼어남을 갖췄네.

2) 고암동(鼓巖洞)

북바위굴 이라고도 하며 뒷산(鼓山)으로 소쇄공시부터 있었던 동굴(고암 동굴)이 현재도 남아 있다. 동은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禹斧搥隄後 우 임금의 도끼가 떨어진 후
 周詩撰刻餘 주 나라의 시는 찬술되었네.
 蜀桐撞卽應 촉 나라 오동나무로 쳐 울리니
 此語豈云虛 이 말을 어찌 헛되다 하리.

3) 가재등(加資磴)

고암동 동쪽 언덕이다.

秩是公侯等 품계는 공후와 견줄만하고
 尊堪太華倫 존귀함은 태화산과 비슷하다.
 峯從五松列 부끄럽군. 다섯 그루 소나무를 벌려
 曾庇片兒身 일찍이 여씨 아이 몸을 덮어주다니.

4) 장자담(莊子潭)

소쇄원 외원의 3개의 골짜기인 북바위굴, 산리동, 통사곡을 통하여 물이 장자담 부근에 모여서 내원의 폭포를 형성한다. 내원(內園)에서 북쪽으로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奇巖平可坐 기암이 평평하여 앉을만 해
 終夕俯深潭 밤이 다하도록 깊은 못 굽어보네.
 濼上當年惹 호(濼)위에서 물고기 보던 그 때의 뜻
 安知我未諳 내 기억하지 못할 줄 어찌 알았으랴.

3. 동북쪽

1) 죽림사(竹林寺)

서당골로 구전되며 북바위굴의 동쪽이다.

書堂中廢壞 서당은 중년에 허물어지고
 獨有竹陰清 오직 시원한 대나무 그늘만 남아있어
 風動千竿玉 바람이 천 갈래 대 끝을 움직이니
 如聞絃誦聲 마치 가야금 소리를 듣는 듯하네.

芟遺崖巢破 비탈 위의 새 집을 부수지 마소.
 脚環當報恩 구슬을 몰아다가 은혜를 갚으리니.

2) 산리동(酸梨洞)

북바위굴 동쪽 골짜기이다.

認是交梨核 알고 보니 배 씨를 교배하여
 初從瑤海湍 처음으로 요해단에서 건너오니
 申來塵土薄 먼지 뒤덮인 척박한 땅에서 나와
 仙味偏成酸 신선의 맛이 시큼하게 변했네.

2) 장목등(長木巖)

당시에는 이 언덕으로도 소쇄원에 진입하였고 언덕
 너머에는 경주정씨 집성촌(현 충의 교육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삼우당(三友堂)이 있었던 경주정씨 집성촌까지
 를 지석리(支石里)라 한다.

長松含晚翠 낙타장송은 겨울의 푸른 빛을 머금고
 高出逼霄寒 높은 봉우리는 차가운 하늘에 가깝네.
 洞冥常集鶴 동구가 어둡하면 늘 학이 깃들고
 風蟠剌聽滿 바람이 서리면 물결 소리를 듣는다.

3) 석구천(石臼泉)

고암동의 동쪽으로 약수로 유명하며 長壽村이다.

石坎纒谷斗 겨우 바가지(斗)만한 돌 구덩이에
 微泉滴滴泓 가느다란 샘의 물방울은 맑아
 欲將清澗水 그 맑고 깨끗한 물을 길러다가
 爲洗簪纓 한바탕 비녀와 갓끈을 씻고저.

5. 남쪽

1) 한벽산(寒碧山)

무등산의 안산이다.

碧岑雲間出 푸른 산은 구름 사이로 솟아나고
 寒臨海上通 차가운은 해상(海上)을 통해 임했네.
 時時登眺 때때로 산 위에 올라 바라다보면
 勢欲壓空峒 형세가 공동산을 압도하려 하네.

4) 통사곡(通仕谷)

고암동의 동쪽에 있다.

李渤曾辭爵 이발은 일찍이 벼슬을 사양하고
 踐陵不事君 엄릉은 임금을 섬기지 않았네.
 身離巖穴隱 몸은 비록 암혈에 숨어 있지만
 猶自動乾文 오히려 하늘을 움직이는 글을 남겼네.

III. 결론

소쇄원 30명과 현 지도를 대조 검토한 결과 소쇄원
 외원의 가장 높은 곳은 북쪽의 웅정봉이며 남쪽에는 무
 등산의 안산인 한벽산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고암동과
 장자담, 한천정사, 가재등이 위치하고 동북쪽이며 고암
 동의 동쪽으로는 죽림사, 산리동, 석구천, 통사곡, 영지
 동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할미봉과 장목등이 위치하여
 넓은 범위의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인 소쇄원 외원을 형
 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영지동(靈芝洞)

고암동의 동쪽 골짜기이며 이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무등산의 경관이 매우 빼어난다.

芝草藏深谷 지초는 깊은 골짜기에 숨고
 漁舟不識源 고기잡이배는 근원을 모르네.
 從來別大地 옛부터 이곳은 별천지이니
 高臥漢黃園 한나라 황원에서 맘껏 살아볼거냐.

4. 동쪽

1) 할미봉(鵝鵝崖)

久離鴻鵠序 오래도록 기러기 무리에서 떨어져
 偏愛鵝鵝原 할미새의 언덕을 매우 사랑했네.

인용문헌

1. 芳菴遺稿